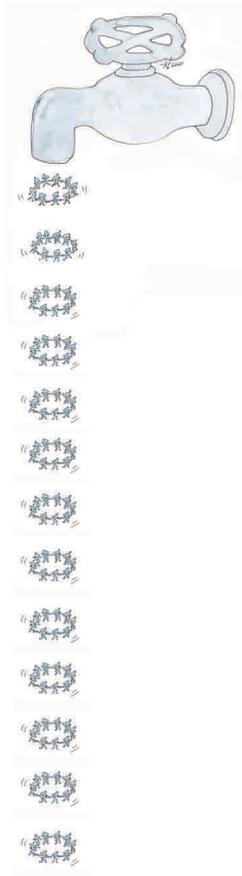


공공용수편 언제 어디서나 물절약!

글 편집실 일러스트 강창욱



우리 일상을 되돌아보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물 부족 사태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2011년이면 연간 18억톤의 물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물까지 수입해 올 수는 없잖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공공 장소에서도 각자의 물 소비량을 줄이는 것 아닐까요?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정해 물이라는 자원의 중요성을 일깨워 온 지 10여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서는 물의 중요성과 물 부족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 소비량을 따져보더라도 우리나라가 1인당 하루 소비하는 물의 양이 물 풍요국가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의 양보다 훨씬 많다니 정말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인구의 약 20% 정도는 자체 식수원을 찾지 못해 갈증에 시달리고 있고, 매년 수백만 명이 직접 음용이 가능한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해 수인성 전염병으로 사망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사실 우리나라와 같이 상수도 관련 연구소가 각 광역자치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몇 안된답니다. 이렇게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수도물 사용 의식수준도 높아져야 하지 않을까요? 환경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물절약 홍보활동으로 가정에서는 어느 정도 물절약이 실천되고 있지만, 공공용수 절약에 대한 국민의식은 여전히 부족하답니다.



시내를 다니다보면 물을 정말 '물 쓰듯' 마구 소비하고 있는 모습을 흔히 보게 됩니다. 주택가에서는 가정에 설치된 수도꼭지를 마구 틀어놓아 물이 길바닥에 철철 흘러내리는 경우도 보게 되고, 또 일부 가정에서는 세차를 한다고 차를 도로에 세워놓고는 수도꼭지에 호스를 꽂아 제대로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아까운 물을 길바닥에 마구 흘려보내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보게 되지요. 그런가하면 놀이터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이나 어른 할 것 없이 수도꼭지를 사용하고는 제대로 잠그지 않아 물을 줄줄 흘려보내는 것도 종종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인근 학교에서 수도꼭지를 제대로 잠그지 않아 물이 새어나오고 있는데도 모르는 척 가버린 적은 없나요? 또 공중목욕탕에서 샤워기를 그대로 틀어놓고 때를 밀지 않나요? 혹시 샤워기로 서로 물장난 하는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진 않나요?

공공장소에서의 예절과 절약하는 습관은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어른이 되어서도 잘 지키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먼저 내 집 물이 아니라고 함부로 쓰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물절약을 생활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라나는 아이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

